

장수군 축산업 새로운 혁신 도약

“허위사실·가짜뉴스 단호히 대처”

한국유전자종축센터 조성 착공식 가져... 이티바이오텍, 7월까지 20억원 투입 건립

장수군은 지난 20일 (주)이티바이오텍에서 기념면 신전리에 본격적인 종축 연구개발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유전자종축센터' 조성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은 장수군이 미래형 축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한국유전자종축센터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착공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최한주 군의회의장,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청 경제부지사, 송규봉 한국종축개량협회 전북본부장 등 주요 내빈과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주)이티바이오텍은 올해 7월까지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축산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량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향상시킬 종모우센터를 조성하고 연구소와 종모우우사 등 연구개발 기반 시설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센터가 조성되면 저탄소형 종모우 생산기술 개발과 교육 지원을 통해 저탄소 장수 한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축산기술 고도화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장수군은 이번 센터 건립을 통해 고



장수군은 지난 20일 (주)이티바이오텍에서 기념면 신전리에 본격적인 종축 연구개발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유전자종축센터' 조성 착공식을 개최했다.

품질 한우 생산의 중심지로 도약해 지역 내 한우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연길 (주)이티바이오텍 대표는 “한국유전자종축센터는 단순한 시설을 넘어 미래 축산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거점 이 될 것이다”며 “첨단 유전자 기술을 기반으로 장수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산 연구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착공식은 장수

군 축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중요한 출발점이다”며 “유전자 기반의 첨단 축산업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유전자종축센터를 착공하는 (주)이티바이오텍은 천천면에 소재한 바이오 축산 전문기업으로 수정란 판매와 종축 컨설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인터넷신문 기자 등 고소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1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성추행 의혹 다시 수면 위... 민주당 진안 공천관 ‘출렁’ 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쓴 인터넷신문 A 기자와 피해 당사자다 주장하는 B씨를 공직선거법(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 군수는 “정책중심의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 및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향후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로 군민의 판단을 흐트러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소인들은 전 군수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안군수 후보가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특히 B씨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심사자 면접장에서 기습적으로 피켓 시위를 한 바 있다.

A기자는 이를 사실 확인 없이 증세 하듯 기사화 함으로써 전 군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사안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전춘성 군수는 “이 또한 군수가 짊어줘야 할 짐”이라며 그 동안 군민회합 차원에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전 군수는 이날 이례적으로 불송치와 불기소 이유를 공개했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에는 사건 전후 자료를 통해 ‘성추행 의혹 다시 수면 위... 민주당 진안 공천관 ‘출렁’ 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쓴 인터넷신문 A 기자와 피해 당사자다 주장하는 B씨를 공직선거법(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적시되어 있다.

불송치 이유 또한 본 건 발생 약 한 달 후 B씨가 ①여러 차례 민남을 요구하고 자신과 주변 지인을 돌봐 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 되는 점, ②함께 모임에 참석하는 등 지인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왔던 점을 들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

전 군수의 법적 대응은 군민들이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본인으로 인해 진안군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 군수는 “군수 재직동안 군민들이 위임해준 권한을 사사roi 이용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탐하지 않았다”며 “과거의 아픈 기억을 꺼내 들어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무책임하게 유포하는 행위는 2차 가해에 해당하니 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소인들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배후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서 단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전주호성점 착공식

진안군이 지역 농산물 유통 혁신과 농업인 판로 확대를 위한 '진안로컬푸드 누적 매출 1,000억 원 시대'의 초석을 다졌다.

진안군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신축 부지에서 지역 농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전주호성점 착공식'을 개최했다.

신축 전주호성점은 총사업비 12억 7천 900만 원이 투입되며, 부지면적 3,342㎡(면적적 1,312㎡)에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다. △1층은 신선농산물 직매장과 소포장실로 꾸며지며, △2층에는 진안 농축산물을 직접 맛볼 수 있는 로컬푸드 정육식당이 들어선다. 특히 약 50년의 주차 공간을 조성해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교(원)장 협의회 가져

장수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장수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장수 관내 유·초·중등 교(원)장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교(원)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동행하며 성장하는 행복한 장수교육'을 비전으로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학생 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6 장수교육지원청 경영계획과 10대 핵심과제를 공유하고 단위학교 교육 현안을 협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장수교육지원청은 협의회에서 협력신장과 책임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역점 추진과제로 △AI·디지털 수업혁신을 통한 미래역량 신장 △맞춤형 독서교육을 통한 문해력 강화 △생태전환교육 및 역사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역량 함양 등을 제시했다.

또한 청렴 서약식과 함께 장수 교정 이현석 학예연구사를 강사로 초청한 역사교육 역량 강화 연수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장수 동춘리 고분군을 탐방하며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교육 방안을 모색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본인부담금 90% 지원

무주군이 '무주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돌봄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월 40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에게는 별도의 처우 수당을 지급해 근무 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 20일 가족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2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제1차 아이돌보미 집담회 및 정서 치

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집담회는 돌보미의 직무 역량 강화와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례와 개선사항을 공유하며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모색했다.

이어 진행된 정서 치유 프로그램에서는 불꽃 화분 심기 활동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적 안정 도모에 나섰다.

/무주=손홍기 기자

진안군-하얏트 브랜드 제휴 업무협약

전국 군 단위 최초' 글로벌 호텔 체인 유치

진안군이 글로벌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진안군과 글로벌 호텔 체인 하얏트(Hyatt)는 지난 20일 진안군청에서 '진안군·하얏트 브랜드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군 단위 최초'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

군은 현재 마이산 북부 일원에 호텔 건립을 추진 중이며, 완공 이후에는 하얏트 브랜드 호텔도 운영될 예정이다. 100실 규모의 호텔은 오는 8월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협약의 배경에는 진안군의 관광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잠깐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지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체류형·고급화로의 전환을 통해 방문객의 발길을 더 오래 붙잡겠다는 전



라이기도 하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다. 서비스업(호텔·음식점업 포함)의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의 두 배 수준으로, 하얏트 임업 시 약 2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연간 500여 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얏트가 진안을 파트너로 선택한 배경에는 진안군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이 주요했다. 미술관 가이드 만점을 빛내고,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할'을 품은 마이산이 있기 때문으로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야간자율학습 학생 대상 '500원 통학 택시' 운영

무주군이 운영을 시작한 500원 통학 택시'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야간자율학습 이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 대상은 지역 내 중·고등학생 81명으로 학생들은 회당 500원만 부담

하면 된다. 운영은 지역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소속 기사들이 맡아 학교에서 학생들의 거주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돕는다.

무주군은 사업 시행에 앞서 지역 내 7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 거리가 편도 2km 이상인면서 노선버스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을 신청받았다.



이후 학생 거주지를 반영해 총 34개 노선을 편성하고 기사 배정을 완료하는 등 운영 준비를 마쳤다. /무주=손홍기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열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